

광주·전남 160개 농·축협 지난해 부채 2조4175억 늘었다

조합 전체의 43% 69곳 적자 ... 1곳당 빚 151억원 더 떠안아 자산규모 큰 순천농협·광주축협·비아농협 등 부채 크게 늘어

광주·전남지역 160개 농·축협들의 지난해 기준 부채가 2조4170억원 늘었다. 이들 조합의 순익은 전년보다 421억원 줄었고, 지난해 적자를 낸 조합은 전체의 43%에 달하는 69곳으로 집계됐다.

5일 광주·전남지역 160개 농·축협 경영공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이들 조합의 부채총계는 34조8168억원으로, 1년 전(32조3993억원)보다 2조4175억원(7.5%) 증가했다.

조합 한 곳당 평균 부채는 2024억9600만원에서 2176억500만원으로 늘어나, 151억원 가량 빚을 더 떠안은 셈이었다.

전남지역 146개 조합의 경우 부채총계는 25조3607억원에서 27조1963억원으로 7.2%(1조8356억원) 증가했다.

광주에 있는 조합은 14개로, 지난해 이들 부채총계는 전년(7조386억원)보다 8.3%(5819억원) 늘어난 7조620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남에서는 전체 146개 조합 가운데 85.6%에 달하는 125곳이 부채가 늘었다. 자산규모가 큰 조합 위주로 부채 증가 폭이 컸다. 순천농협의 지난해 부채총계는 2조2434억원으로, 8.9%(1834억원) 증가율을 보였다. 광주축협 부채는 765억7500만원 늘어난 7987억원을 기록했고, 여천농협(654억원), 여수(604억원), 동광양(585억원), 목포(527억원), 목포원예농협·광양원예농협(각 521억원) 등도 500억원이 넘는 증가 폭을 나타냈다.

광주지역에서는 삼도(-50억원)와 동곡농협(-10억원)을 제외한 12곳 모두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아농협은 전년보다 부채가 1062억원 늘어 부채가 1조를 넘겼다. 부채 증가액은 서광주농협(1060억원), 남광주(772억원), 하남(758억원), 광주(641억원), 서창(568억원), 송정(469억원), 북광주(327억원), 임곡(112억원), 분량(70억원),

■전남지역농협 순이익 증감 상위 순위 (단위:억원·%)

조합명	당기순이익		부채증감	이익금 배분율	
	2018	2019		2018	2019
영암	7510	7308	-202	227	13.27
여천	205	40	-165	654	17.76
신안	1.8	-12	-14	157	6.96
전남 서남부채소	1.2	-9	-11	49	6.03
간성	24	15	-9	41	20.65
:					
동광양	25	29	3	585	14.67
남평	21	25	4	108	23.72
고흥	7	12	4	128	14.97
광주축협	44	50	6	766	16.13
삼서	-13	3	16	12	16.16

※160개 조합 순이익 추이는 광주일보 홈페이지 게재
대촌(28억원), 평동(13억원)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적자 영업을 한 조합은 전체 160곳 가운데

■광주 14개 농협 순이익 추이 (단위:백만원·%)

조합명	당기순이익		부채증감	배분율	
	2018	2019		2018	2019
동곡	411	311	-100	-1017	21.65
남광주	4607	4404	-202	77207	19.67
송정	1180	1103	-78	46877	15.9
광주	5336	5276	-60	64101	19.11
삼도	178	127	-51	-5017	16
임곡	374	356	-18	11214	17.97
북광주	2490	2511	21	32689	19.54
평동	523	550	27	1273	18.16
분량	180	208	28	7043	50
하남	2250	2305	55	75808	16.31
서광주	4758	4825	67	105972	18.41
비아	3655	3752	97	106204	15.62
서창	2640	2823	183	56812	17.57
대촌	610	802	192	2817	19.41

43.1%에 달하는 69곳으로 나타났다. 160개 조합의 지난해 당기 순이익 합계액은

8891억2600만원으로, 1년 전(9311억8800만원)보다 4.5%(-421억원) 감소했다. 전남 146개 조합의 당기 순이익은 전년에 비해 422억2500만원 줄었고, 광주 14곳은 1억6100만원 증가했다.

전남지역에서는 63개 조합이 손실을 봤다. 영암농협은 당기순이익이 7510억원에서 7308억원으로 2.7%(202억원) 줄었고, 여천농협(-165억원), 신안농협(-14억원), 전남서남부채소농협(-11억원), 강진농협(-9억원) 등도 손실을 봤다.

광주지역에서 가장 높은 순익을 낸 광주농협은 지난해 1.1%(-6000만원) 감소한 52억7600만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순익이 줄어든 곳은 동곡농협(-1억원), 남광주(-2억2000만원), 송정(-7800만원), 삼도(-5100만원), 임곡(-1800만원) 등 6곳이었다.

한편 이익금 조합원 배분율이 전년보다 하락한 곳은 전남 67곳·광주 4곳 등 총 71곳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전남지역 146개 평균 배분율은 16.62%로, 전년(16.55%)에서 제자리걸음했다. 광주지역 평균 이익금 조합원 배분율은 20.38%에서 20.83%로 소폭 상승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311.86 (+31.89) ↓ 금리(국고채 3년) 0.795 (-0.007)
- ↑ 코스닥 847.28 (+11.93) ↓ 환율(USD) 1188.80 (-5.30)



광주은행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61호점 선정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5일 동구 계림동 '친한친구지역아동센터'를 61번째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으로 선정하고 이곳 학습기구를 교체해줬다. 고병일(왼쪽) 부행장이 선정 기념물을 전달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개미군단 덕에 ... 코스피 2310 돌파 1년 10개월 만에 최고

5일 코스피가 1% 넘게 상승해 2310선까지 돌파했다. 증가 기준 1년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1.89포인트(1.40%) 오른 2311.86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로써 코스피는 전년에 이어 다시 한번 증가 및 장중 기준 연고점을 새로 썼다. 지난 4일 증가 기준으로 집계한 연초 대비 코스피 상승률은 3.7%로, 아르헨티나(25.2%)와 중국(10.5%)에 이어 주요 20개국(G20)의 대표 지수 가운데 3위를 기록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개인이 4296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반면 기관은 3638억원, 외국인은 456억원을 각각 순매도했다. 거래량은 8억2000만주, 거래대금은 약 17조6000억원 규모였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93포인트(1.43%) 오른 847.28로 종료했다. 이로써 코스닥은 2018년 6월15일(종가 866.22) 이후 약 2년 2개월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코스닥시장 거래량은 14억 8000만주, 거래대금은 약 12조5000억원 수준이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5.3원 내린 달러당 1188.8원에 마감했다. /연합뉴스

광주 '상무 대라수 멀티하우스' 28일 견본주택 오픈 치평동에 총 400실 사전예약자 냉난방기 제공

광주 '상무 대라수 멀티하우스'(조합도)는 오는 28일 견본주택을 오픈한다고 5일 밝혔다.

상무 대라수 멀티하우스는 광주 서구 치평동 1230번지에 들어서며, 지하 5층·지상 20층, 총 400실로 구성돼 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고, 일상을 집에서 해결하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인기를 끌고 있는 '멀티하우스'의 특징을 담고 있다.

건물 내 출입구에는 UV살균기가 설치되고, 현관 신발장 안에도 청정시스템(현관 에어청정기 및 신발살균기 유상 옵션)이 설치된다. 사전예약자에 한해 각 세대에 공기청정기 가능한 냉방난기도 제공된다. 무인택배함을 비롯, 사무용 미팅룸으로도 활용 가능한 커뮤니티 및 공용오피스도 별도로 마련돼 효율적인 재택근무가 가능하다.

광주 중심 상권이 들어섬에 따라 대형마트와 영화관, 병원, 공원 등 쇼핑과 문화, 의료를 아우르는 생활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지하철 2호선 시청역과 운전 초교역 개통 예정으로 특별세금 프리 미업을 누릴 수 있어 상권활성화와 생활



인프라 개선이 기대된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당장 필요하지 않은 집기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각종 세대에 개별 창고(총 165개)를 제공, 테라스 가든·중정가든 등도 설치한다. 상가 내에는 입주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런더리 카페가 입점해 빨래를 기다리며 음료도 즐길 수 있다.

여기에 도로변에 위치한 상가인 데다, 대형 LED 광고판도 설치돼 입점 상가의 무료 광고가 가능하고, 최대 6m의 층고로 다락층 영업도 할 수 있다. 기준금리 0.5 최저 금리시대 안정적 월세 수익과 함께 규제도 적용되지 않아 전매가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한편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사전예약제를 실시하는 상무 대라수 멀티하우스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클린 견본주택을 운영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사전예약자에 한해 입장이 가능하고 UV살균기를 통한 소독과 열화상 카메라, 손소독제가 비치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견본주택 위치는 광주 서구 북촌길12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꽃詩로 엮은 꽃으로 오는 소리

조선의 낭송 시집

시인 조선의

"조선의 시인은 꽃을 통해 자신의 시를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꽃이 던지는 언어를 깊이 공감하고 상상력과 결부하여 형상화한다. 문학이 응당 갖추어야 할 덕목 중 하나는 당연한 자연이다. 그런 사실적 진실을 벗어나지 않은 진정성이 시적 상상력으로 진전한 것이다. 금번 여섯 번째 시집으로 엮어낸 시편들의 문학적 함의와 정서에 대한 호기심은 가독성을 사유토록 야기한다. 그 시편들 속에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존재에 대한 철학적 질문과 진정하게 이뤄내야 할 삶의 방향에 대한 탐색과 모색까지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 박철영 시인·문학평론가

조선의 프로필

농민신문신춘문에 당선
거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안정복문학대상 등 수상

기독신춘문에 당선
백교문학상
신석정충북문학상

조선의 시집

"당신 반칙이야"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어쩌면 쓰러린 날은 꽃피는 동안이다"
"돌이라는 새"
"꽃으로 오는 소리"